

개인무빙 보고서

과천 맑은샘학교

이한주

1. 움직이는 학교 현장 소개

1) 정보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3로 3-1(과천동 469)

대표 : 전정일

2) 단체소개

과천 맑은샘학교는 이오덕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밑바탕으로 교육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교육, 일과 놀이 교육, 생명 교육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 맑은샘 학교는 크게 ‘어린이가 제 삶의 주인이다.’,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 ‘앞날을 열어간다.’라는 철학이 있다. 어린이들을 보면 다들 우리말을 바로 쓰고 자연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겨 한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좋은 환경이다. 또 반 이름이 정해져있는데 1학년은 푸른샘 2학년 옹달샘 3학년은 알찬샘 4학년은 뿌리샘 5학년은 누리샘 6학년은 깊은샘 으로 구성 되었다. 지금은 3학년 수가 부족해서 옹달샘을 안쓰고 2,3학년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단체선정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이고 초등 대안학교 교사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모교인 맑은 샘 학교에 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까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도 보고 어릴 때 맑은샘학교를 다닐 때 되게 재미있는 수업이 많았는데 그걸 커서 또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다. 왜 하필 다른 초등 대안학교도 많은데 맑은 샘 학교로 갔냐고 물어본다면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웠던 학교에 커서 선생님이 되면 색다른 느낌이 들 거 같았다. 그리고 다른 대안학교보다 교육과정이 마음에 들었고 교통편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3. 업무 시간

날짜: 6/2 ~ 6/24 총 23일

출근 8:30~4:30 퇴근

4. 본인 업무, 역할

나는 보조 선생님이로 갔다. 목요일에 처음 출근해서 이틀 동안 1학년 교실에서 지냈다. 수업시간에 제각각 흩어져있는 아이들을 불러오거나 책을 읽어주고 점심시간에 밥을 나눠준단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거나 놀이를 하는 일했다. 그 외에는 선생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시키는 것들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6학년 교실에서 하루 지내고 4학년 교실에서 지냈다. 그 다음주 부터는 확실히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교실에 가서 지냈던 것 같다.

5. 총평

짧은 시간이지만 대안학교 교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게 됐고 보기와 다르게 엄청난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존경스럽다.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 희석쌤 말씀 좀 더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힘들고 월급이 적어도 하는 이유를 배우기도 했다. 아이들이 날 좋아해 주고 편지도 써주고 걸으려는 내가 싫다고 말하고 매달리기도 해도 몰래 일기에다 나는 한주 선생님이 좋다,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이래서 교사를 하는구나 하고 울컥했다. 원래는 잘 찾아가지 않던 맑은샘 학교지만 이제는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을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다.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이쁘고 귀엽다. 아직 나도 어린데 이런 말을 하는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참 좋다.

기억의 남은 수업들.



물감 놀이

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한 수업인데 일단 공룡 모양 이나 강아지 모양으로 종이를 자르고 물감을 물에 색깔별로 푼다음 종이를 넣으면 예쁜 무늬로 종이가 물든다 그걸 말려서 코팅해 집으로 가져갔다.



수영

매주 화요일마다 1,2,3학년들이랑 수영을 간다. 나는 가서 애들 수영복을 입히고 씻기고 수영하는 곳으로 보낸다 그리고 할 일이 딱히 없어 애들한테 물을 뿌리거나 앉아 있다. 애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싶어서 개인무빙이 끝났는데 와서 같이 수영했다. 그만큼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텃밭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하는 수업이다. 맑은샘학교는 자연 과 친환경을 중요시 여겨서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초등학교때 농사하던 곳이란 똑같은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신기했다. 근데 그 텃밭이 곳 못쓰게 된다고 해서 아쉬웠다. 마늘을 캐는데 애들이 엄청 쑥쑥 잘 캐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서 웃겼다.



책 읽어주기

처음엔 사실 잘 못할줄 알고 걱정했다. 하지만 끝나고 선생님들이 엄청 잘 읽어준다 해서 다행이었다. 나는 책 읽는걸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책 읽어주는 시간을 엄청 좋아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인데도 집중력이 엄청났다. 15분동안 한번도 떠들지 않고 경청해서 신기했다. 위에 사진처럼 책을 들고있으면 팔이 좀 아팠다. 이걸 매일 읽어주시는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개인무빙 하루 일지

2022년 6월 2일 목요일

맑은샘학교로 첫 출근을 했다. 아침에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푸른샘에서 김우정선생님을 도와주며 남은 목요일 금요일을 살면 된다고 하셨다. 오전엔 아침열기로 산책을 갔다. 가다가 희주누나를 마주쳐 인사를 했다. 그리고 돌아와 책을읽고 시를 외고 노래를 부른다음 소공원? 으로 가서 줄놀이를 했다. 허리에 줄을 묶어 발로 밟는 놀이도 했고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어부놀이도 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그리고 푸른샘이 난타를 배우고 나는 구경하다가 나와서 2학년친구들이랑 놀았다. 잘은 못치지만 피아노도 치고 애들이랑 재밌게 놀았다. 친구들이 설새없이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 귀엽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자꾸 한비언니 예쁘지 라고 물어봐 계속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한비를 예쁘다고 말하면 좋겠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돼서 준비를 했다. 배식하는곳이 좁아서 쪼그리고 해서 다리가 아팠다. 오후에는 이준이가 와서 이준이랑 같이 청소도하고 선그리기도 했다. 그리고 쉬는데 진이 빠졌다 애들 텐션이 굉장히 높아서 나도 이렇게 기가 빠리는데 선생님들은 오죽할까 싶었다. 옛날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앞으로의 맑은샘 학교생활이 기대된다.

2022. 6. 3. 금요일

단오날이라서 아침에 푸른샘 어린이들이랑 산책을 갔다 온 뒤 텃밭에 물 주는 일을 조금 하고 창포물을 가져와 어린이들 머리를 감겨줬다 한주엽 선생님이 물을 뿌려주시고 애들은“아 차가워!”하면서 머리를 비비고 있었다. 눈에 물을 부치면 눈이 밝아진다는 주엽쌤의 말씀에 눈도 비비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리고 별다른 일과 없이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낮엔 씨름대회를 했다. 어릴 때 좋아하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로 구경하고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새로운 느낌이었다. 높은샘 어린이들 특히 여자 어린이들은 친구랑 힘겨루며 씨름하기 싫었는지 의리가 중요한 건지 시작하자마자 같이 주저앉아버리는 친구들도 많았다. ㅋㅋ 좀 열심히 해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해도 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전체 마침회도 해봤다. 추억이 새록새록 이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반에 가서도 지내보고 싶다. 기대된다.

2022. 06. 07 화

3일 만에 다시 맑은샘을 갔다. 오늘은 6학년이랑 지내보기로 했다. 아침에 6학년 친구들이 조금 늦게 와서 아침 열기를 나중에 했다. 6학년은 2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애들 성향이 그런 건지 노학섭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데 음... 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만 반복되었다. 하도 말이 없고 그냥 노학섭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가서 지루하게 느껴졌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하고 싶은게 뭔지 맞춰주려는 노학섭 선생님의 수고도 보였다. 바로 저번 주에 시끄러운 1학년들이랑 생활해서 그런지 좀 더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아침 열기가 끝이 나고 내일부터 6학년들만 따로 가는 자연속학교를 가기 때문에 자연속학교 관련 얘기도 하고 시와 그림 내보이기 준비를 한 다음 졸업생과 간담회라 해서 나랑 6학년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천간디학교 관련 질문을 했다. 기숙사 장단점이라던지 집은 언제 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선생님 없이 친구들이랑 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선생님 먼저 내려가시라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눴다. 별 얘기 안하고 그냥 학교가 왜 재미없냐 하고 싶은게 뭐냐 이런 이야기만 나누나 밥을 먹으러 갔다. 그리고 오후는 사물놀이 배우는걸 구경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서 놀랐다. 내일은 뭐 할지 기대된다.

2022. 6. 8. 수

뿌리샘 (4학년) 이랑 같이 지내보았다. 아침열기부터 엄청 시끄러웠다. 근데 귀아픈 시끄러움이 아닌 재미있는 시끄러움이라서 괜찮았다. 아침열기를 하고 관악산쪽으로 가서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나무나 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에 게임도 했는데 승부욕이 강한 두친구가 1대1 대결을 했다. 어느 한 친구가 졌는데 그 친구 편인 친구들이 '괜찮아' '질수도 있지' 이런식으로 얘기하며 위로를 해줘서 아 역시 높은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에는 기타를 조금 쳐줬는데 아이들이 몰려와서 공연보는 것처럼 해줘서 뿌듯했다. 오후에는 푸른샘이랑 천 물들이기를 했는데 옛날 기억도 나고 재밌었지만.. 쪼그려 앉아서 하니까 조금 다리가 아팠다. 오늘 산도 다녀오고 전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맑은샘 오고 나서 제일 재미있는 날이었다. 날이 지날수록 다음 날이 기대된다.

2022. 6. 9. 목

아침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하마터면 제때 내리지 못할뻔했다. 오늘도 뿌리샘에서 지냈다. 오늘 오전에는 시와 그림 내보이기 초대장을 쓰고 장구를 치러갔다. 전쌤이 어디 가서서 아이들끼리 기억해서 쳐 봤는데 내가 3, 4학년 때 했던 장단이 조금씩 기억나서 신기했다. 별달거리를 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기억이나 쳐서 재밌었다. 그리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서 4층 별빛샘에 가서 조금 누워있었는데 한주엽선생님이 불러서 일어나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있었다.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다. 오후 시간엔 수학과 과학을 배웠는데 중고등학교도 대안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수학 세로 곱셈하는 법도 까먹어 버려서 다솜이한테 하는 법을 배웠다. 나보다 더 잘해서 깜짝 놀랐다,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할 줄 알게 되었다. 수학 공부는 재밌는 거 같다.

2022. 6. 14. 화

주말에 하동의 가서 매실을 엄청나게 따고 월요일 하루 쉬고 오늘 출근했다. 이번 주는 알찬샘에서 지낼 것 같다. 아침에 와서 아침열기를 들어갔다. 주엽쌤은 영어를 가르쳐주셔야 해서 박경실 선생님이 대신 오셔서 아침열기를 진행했다. 종이접기를 했다. 부채를 만들었는데 나름 재밌었다. 그리고 수학의 날 행사를 했다. 오랜만이였다. 자치기랑 선그리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한 면을 숫자로 다 채우는 것도 했었다. 나는 이예지 선생님을 도와 자치기를 했다. 나름 재밌었다. 옛날에는 종이를 가위로 계속 규칙적으로 잘라서 재밌는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걸 안해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오후엔 원래 낮은 학년 따라 수영을 갈려고 했는데 이예지쌤이 병원을 가서 뿌리샘이랑 나무 손가락 사포질했다. 조금 하다가 전정일 선생님이 어디 가서서 몰래 놀았다. 놀다가 전쌤 차가 보이니까 아이들이 부리나케 달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웃겼다 하하거리고 재밌는 이야기들도 몇 개 해주니까 하루가 끝나있었다, 재밌는 하루였다.

2022. 6. 15. 수

아침에 누리샘에서 지내기로 했다. 강사님이 오셔서 친환경 에너지의 관한걸 말씀해주시고 4,5학년친구들이랑 직접 스탠드를 만들었다. 나무를 사포로 갈고 붙이고 연결하고 해서 마지막에 불이 딱 들어오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다. 그 다음 점심시간에 알찬샘 여자 어린이들과 밥을 먹었는데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장난을 쳤다. 뭐 귀엽고 재밌으니까 같이 웃으면서 놀았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떤 친구를 조금 놀려줬더니 엄청 빠져가지고 그 아이 친구들까지 막 짜려보고 사과하러 가면 저리가라 하고 조금 속상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네들은 나한테 엄청 장난치고 잘 받아주는데 왜 나는 조금만 장난쳐도 그렇게 화내?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니니까 조금만 장난쳐도 엄청 서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힘든 거라 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일을 조금 더 성장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022. 6. 16 목

오전에 알찬샘 어린이들이랑 비누를 만들었다.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만들었는데 너무 뜨거운 것들이 많아서 다칠까 봐 무서웠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범이 형이 왔다. 작년에도 만났지만 반가웠다. 그리고 시와 그림 내보이기 준비를 하러 푸른샘이랑 먼저 중앙공원으로 갔다. 밥을 먹고 우유곽을 들고서 한살림에 주고 얼음과자를 먹으면서 놀았다. 도서관에서 조금 자니까 나머지 학년들이 도착했다. 시판을 나르고 예쁘게 나열해놨다. 그리고 갑자기 성범이가 애들이랑 다방구를 하자 했다. 뜬금없다고 생각했지만 했는데 다 같이 잘 노는 모습을 보니까 재밌기도 했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다. 미국에서 얼마나 심심했으면 이렇게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까ㅋㅋㅋ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다가 마침회를 하고 집에 갔다. 많이 한 건 없지만 힘들었다. 집에서 일찍 잠들었다. 내일은 알찬샘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다, 잘 지내야겠다.

2022, 6, 20월

푸른샘 어린이들이랑 아침 일찍부터 과학관을 갔다. 하지만 월요일은 휴관이었다 아쉬웠다. 놀이터에서 조금 놀다가 점심으로 먹으려 싸 온 도시락을 먹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오랜만에 몸놀리로 축구를 하러 관문체육공원으로 갔다. 전쌤이 내가 맑은샘을 다닐 때 이메시라고 불러줬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어린이들한테 얘기해줬다. 몸풀기하고 축구를 했는데 다들 엄청 잘했다. 나는 공을 몰고 혼자 드리블해서 가는 편이라서 내 편이 패스 좀

달라고 뭐라 했다. 하지만 애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혼자 해버렸다.... 막판엔 패스도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한주 선생님 못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지율이에 패스를 받아 골을 넣어서 다행이었다, 점수는 1대1로 끝났다. 오랜만에 땀도 흘리고 재미있었다. 윤슬이가 수비를 엄청 잘해서 놀랐다. 내일은 해엄을 따라가는데 오랜만에 거기에 가는 거라 기대된다. 또 일정이 바뀌어서 못 가진 않겠지.

2022. 6. 21. 화

오전에는 푸른샘 어린이들이랑 산책을 갔다 오고 책도 읽고 시도 외우다 보니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할 게 없는 거 같아서 한숨 잤는데 밥 먹을 시간이었다. 김우정 선생님도 일부로 안 깨웠다고 했다. 감사했다 요즘 너무 피곤했었나 보다. 그리고 낮에는 해엄을 따라가 봤다. 애들 씻기고 수영장에서 앉아서 기다렸다. 오랜만에 수영장을 와서 그런지 그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너무 물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라는데 맑은샘에 오는 날이 아니라도 와서 어린이들이랑 같이 수영하고 싶다. 그리고 애들을 보며 앉아있었는데 한 여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 옛날에 여기서 수영 배웠던 애 아니냐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 거의 8~9년이 지났는데 날 알아보시다니, 여자 선생님 얼굴도 기억이 날 듯 말 듯했다. 그 선생님이 하시던 말이 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많이 혼냈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아! 나 맞네 하고 확신했다, 너무 웃겼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학교로 돌아갔다. 마침회하고 끝,

2022. 6. 22. 물 날

아침나절에는 오늘 하루 선생님 바꾸기 날이어서 푸른샘에 박경실 선생님이 오셨다. 원래 하던 것처럼 책을 읽고 시도 외우고 노래도 불렀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개구리 반지 만들기를 했다. 좀 쉬다가 기름 물감을 물에 부어서 모양 종이를 넣어 색 입히기를 했다. 재밌었다. 손이고 옷이고 더러워졌다. 좀 쉬다 점심을 먹고 낮엔 맑은샘회의를 했다.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나뉘어 있는 게 우리 때랑 방식이 똑같아서 아직도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하고 신기했다. 동아리 이야기 외 두 이야기가 더 있었는데 동아리 이야기를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지루한 것도 똑같아서 좀 아쉬웠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조금 더 애들이랑 추억을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잘 챙겨주고 재밌게 놀고 사진도 많이 찍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2022. 6. 23. 목

아침에 푸른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다. 굉장히 길어서 읽기 힘들었다. 그리고 푸른샘과 알찬샘이 모여서 노래를 달팽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영상을 찍었다. 나는 기타 반주를 쳐줬다. 영상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비석 치기도 했다. 옛날에 맑은샘 다닐 때 엄청 많이 했었던 건데 실력이 죽지 않았다 내가 엄청나게 잘했다. 그래서 일부로 봐주면서 했다. 점심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맛있는 삼계탕을 해주셨다. 너무 맛있었고 살코기가 다 발라져 있었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위한 정성이 대단했다. 낮엔 누리샘 친구들이랑 마늘 빵을 만들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와주려고 절구통에 마늘을 뺄 건 안 튀어나오게 손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손에서 엄청 냄새가 났다. 그리고는 역시 5학년이라 그런지 알아서 잘했다. 마늘 빵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밖에 못 먹었다. 그리고는 일과가 끝나있었다.

2022. 6. 24. 쇠날

마무리하며.

아침에 마지막으로 알찬샘에서 지내게 됐다. 한주엽 선생님이 하루 쉬는 날이어서 박경실 선생님이 대신 알찬샘으로 들어가서 아침나절을 보냈다. 그림 그리기 시간에 내 얼굴 그리기도 하고 종이접기로 모자도 만들었다. 낮엔 맑은샘이랑 같이 비석 치기를 했다. 단계가 이렇게 많았으나 싫을 정도로 뭐가 많았다. 하루 일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가 3주 동안 맑은샘에서 지내며 느낀 점을 말하고 싶다. 나는 처음 올 때 조금은 어색했지만 익숙한 공간과 선생님들이 편하게 대해주고 어린이들이 유쾌하게 대해줘서 금방 적응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3주를 살며 좋은 선생님 또는 오빠, 형으로 남고 싶어서 화나는 일이 있거나 짜증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웃으며 넘어갔었던 것 같다. 물론 화가 나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켈 기억에 남는 건. 유치하지만 2학년 어린이들하고 다툼도 있었던 것 같다. 채아, 지음, 이안, 은유 3학년 하린이 까지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를 짜려보고 뭐라 뭐라 놀려서 나도 조금씩 약 올리거나 이 씨~,죽을래! 같은 말들을 했는데 거기서 더 기분이 상했나보다 사과도 많이 하고 풀려고 했지만, 기분이 많이 상했나 보다. 물론 잘 놀았다 서로 다투면서 장난치는 정도로 지내다 어느 날 답글을 써주다 지음이의 일기를 봤는데 한주 선생님이랑 싸웠다. 이제 며칠 있으면 가는데 왜 그랬나 싶다. 사실은 미안하다 화해해야겠다. 이런 글이 이틀에 걸쳐 쓰여 있었다. 맨날 날 짜려보고 놀리던 지음이가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했다. 이래서 선생님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경실 선생님이 지음이 일기를 봐보라고 해서 비석 치기를 할 때 잠깐 가서 봤는데 요약해보면 한주 선생님이 곧 간다. 겉으로는 한주 선생님을 짜려보기도 하고 싫다 하고 그랬지만 나는 사실 한주 선생님이 정말 좋다, 가족 다음으로 좋다, 가지 마세요~ 올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쓰여 있어 가슴이 뭉클해졌다. 집에 와 어린이들이 써준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니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눈물이 났다. 정이 많이든 것 같다. 모든 학년을 돌아다니며 지내봤는데 전부 마음씨가 곱고 재밌는 어린이들이라서 역시 맑은샘 학교는 좋은 학교구나 하고 맑은샘학교를 잘 졸업한 내가 자랑스러워졌다. 개인무빙을 맑은샘학교로 온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너무 재밌었고 값진 시간이라 생각한다. 3주 동안 지내면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신 전정일 선생님, 한주엽 선생님, 김우정 선생님, 박경실 선생님, 이예지 선생님, 노학섭 선생님, 임지연 선생님, 최지영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개인무빙 마무리)